

음식에서 찾아가는 해답, 가정과 사회를 이롭게 하다.

-사회적기업 (주)제이티푸드솔루션-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 그만큼 환경과 음식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음식을 다루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음식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이는 재료, 그 이상의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이 아닌가 한다.

음식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는 기업을 만나보자.

사회적기업 (주)제이티푸드솔루션(대표 심재우, 이하 제이티푸드)은 ‘가정, 행복의 씨앗’이라는 설립 이념을 가지고 2014년 설립한 이래로 2022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천안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터전 삼아 천안의 임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제이티푸드는 가정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음식에 솔루션을 더하는 건강한 사회적기업 실현을 미션으로 고객에게는 감동을, 임직원에게는 보람을, 사회에는 나눔을 통한 만족을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축하고자 나아가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이티푸드솔루션 심재우 대표는 15세에 시작한 요리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온 음식을 통한 여정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힘, 음식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길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심 대표는 지금도 그 길을 정진해 가고 있다.

제이티푸드는 천안 향토식품의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임산물을 이용한 발효특산물(십전대보발효액) 개발, 전통 장류 식품(청정 된장, 청정 간장, 보리고추장)과 천안특산물인 호두를 활용한 장류 식품(천안 호두 약고추장) 등 건강하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류를 개발해 양산하고 있다.



제이티푸드가 개발한 십전대보발효액은 국내 농장에서 재배한 약초를 직접 수매해 생약재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외국산 건약재를 사용하는 기존의 십전대보탕과는 차별된다. 또한 십전대보발효액은 타 회사의 기존 제품들과 달리 가압 열탕 추출이 아닌 향아리에서 6개월간 발효시켜 제조한 발효 식품으로서 약이 아닌 부작용과 독성이 없는 식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만든 십전대보발효액은 국내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상품으로, 2020년 생산한 십전대보발효액을 1년간 장기간 복용한 고객들의 경험과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당사 매출의 100% 이상을 신장시킨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또한 십전대보발효액과 결합한 새로운 장르(특히 고추장) 개발에 착수해 시제품이 나왔으며, 면역체계 개선 및 건강증진 목적 발효 식품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기에 적절한 상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추장의 수출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제이티푸드는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이티푸드가 위치한 광덕산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강의·실습·식사·숙박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all-in-one)'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십전대보발효액과 천안 호두 약고 추장 등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발효 식품들을 수십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우는 차별성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에는 7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이티푸드에서는 사회적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원칙의 하나로 산촌마을의 고령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산촌마을은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급속히 줄어들어 산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고령자를 지속 고용해(현재 총 근로자 3명 중 2명)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선진 복지정책 시행하여 높은 생산효율과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 및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한 기업의 움직임이지, 지역의 운동

(Campaign)이 되지는 않는 실정이라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가 더욱 확산, 정착 될 수 있도록 제이티푸드가 좋은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이티푸드에는 삶이 주는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이 실무자로 일하시기 때문에 업무 재교육 비용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고령에 따른 체력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심재우 대표는 전했다.



심재우 대표는 자기업의 운영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 이사직 및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사)한국조리협회 등에서도 이사직을 수행하며 자신의 기업 운영 기술을 다른 기업의 운영에도 전수하며, 기업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청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심 대표의 기업 운영 이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운영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고민하며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된 점은 지역을 살리는 협동의 경제공동체로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상품과 서비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경쟁하는 상생을 기업의 사업 운영 목표로 설정한 점이라고 한다.

제이티푸드는 어느덧 천안(광덕면 산촌 지역) 산림 발전, 지역사회의 지원과 연대 강화, 자연환경 보존, 수혜자의 건강 향상 등 산림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며 도움을 받는 기업에서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과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인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천안에서 공익컨설턴트(프로보노)로 활동 중이다. (사)충남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천안사회경제연대,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등 여러 네트워크에서 운영 이사를 맡으며 활동하고 있고, 80여 개 이상의 기관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상품 경쟁력과 혁신역량 확보, 사회적 경제 협력 체계 확립, 민·관 협치 네트워크 구축 등 개인이 아닌 모두의 운동(Campaign)을 통해 지속 가능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이티푸드에게 2022년은 계획했던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의미있는 한해였다. 2023년에도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다. 심 대표는 2023년 또한 이러한 기대와 요청들에 성실히 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잘 먹고 잘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필수 과제이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내일을 살아가는 것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래서 (주)제이티푸드 솔루션 같은 사회적기업의 다음 행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